

LT(H; L)론

김진우

1. 서론

최근에 이르러 언어 학습의 이론은 언어학은 물론이요, 심리학이나 철학의 분야에서까지 중요한 논제의 하나로 등장했다. 언어를 기술하고 거기에 내재된 체계를 발견하는 작업에 열중하는 언어학자가 기술의 모형과 학습의 모형과의 관련성을 검토하려는 의도는 당연한 일이다. 또한 인간의 행태를 연구하는 심리학자의 입장에서 언어 학습은 그들의 핵심적인 과제 중의 하나가 되었다. 언어야말로 가장 오묘하며 복잡한 인간 행태이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서는 철학자들도 언어 학습의 이론에 많은 관심을 표시해왔다. 왜냐하면 언어도 분명히 지식 조직의 일부일 것이기에 언어 학습의 이론을 밝힘으로써 인간의 지식 구조의 본질을 구명할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이들의 어느 쪽에서 접근을 하든 인간이 어떻게 언어를 배우게 되는가를 알아내려는 노력은 끈질기게 계속될 것이다. 결국은 이러한 노력이 인간 언어의 본체를 구명하는 일로 귀착될 것은 물론이요, 더 크게 보아서 인간의 본질 자체를 통찰할 수 있는 시각도 열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각 분야마다에서 언어 학습에 쏟은 관심의 양은 그들이 내세운 많은 가설과 관찰과 이론 등에 의해서 잘 나타나 있다. 학문마다의 고유한 특성이 있고 또한 학자마다의 특유한 개성이 있게 마련이어서 많은 대립적인 주장과 입장이 교차되고 있다. 더구나 언어학이나 심리학이 모두 상대적으로 어린 과학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앞으로도 더 많은 가설과 주장이 있을 것을 예측할 수가 있다. 궁극에 가서는 무엇이 과학적 방법론이냐의 과학이론으로까지 대립이 가능하며, 또한 현대 학문의 기본적인 맥락이 되는 이성주의와 경험주의의 입장으로 양립될 수도 있으며, 혹은 관찰된 자료가 중요하냐 아니면 이론적인 모형이 중요하냐의 대립도 계속해서 있을 수가 있다.

Chomsky가 내세우는 언어 학습의 이론은 이렇듯 다양한 양상에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 같다. 그의 이론의 독특성은 크게 두 가지로 집약시킬 수 있는 바, 그 첫째는 그의 이론의 강력성이다. Chomsky는 애초부터 언어학의 목적은 언어 학습의 이론을 정립하는데 있다고 천명하고 나섰다. 따라서 언어 기술의 모형은 곧 언어 학습의 모형과 같을 수 밖에 없다고 그는 주장하였다. 여기에서 말하는 모형은 그가 내세운 생성문법의 모형에 해당된다. 그의 문법 이론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몇번의 변형을 겪었지만 궁극에 가서는 문법이 언어 학습의 이론을 설명하는 것이어야 된다는 입장에서 변함이 없었다. 차원을 높여서 원대한 목표를 계속해서 추구한다는 점에서 그의 입장의 강력함을 엿볼 수가 있다.

다음으로 그의 이론의 대립성을 들 수가 있다. Chomsky는 철저하게 이성주의를 고집하였다. 그의 문법이 있기 전에는 언어학에서나 심리학에서나 경험주의가 주류를 이루는 상황이어서 언어 학습에 관한 이론도 대부분이 경험주의에 근거한 것들이었다. 여기에 그는 정반대의 입장을 취하게 된다. 언어학의 분야에서 경험주의적인 방법의 한계를 신랄하게

비평했지만 심리학의 분야에서는 더욱 강력하게 반론을 폈다. 부차적이고 주변적인 절차로 인간 언어의 학습 이론이 규명될 수가 없다는 것이었다. 행태주의 심리학과 흐름을 달리 하는 인지주의보다도 그의 반대성은 더욱 강했다. 언어의 본질적인 체계와 조직을 내재적인 것으로 보는 이상 외부와의 노출로 경험되어지는 절차들은 행태주의적인 것이든 인지주의적인 것이든 주변적일 수 밖에 없었다.

그의 학습이론이 이렇게 강력하고 대립적인데에 비례해서 그 파문도 컸다. 그의 이론은 앞에서 지적되었듯이 다분히 추상적이고 고차원적이다. 따라서 잘못된 해석이나 과장된 해석도 있을 수 있었다. 또한 그의 이론이 극단적인 대립성을 나타냈기 때문에 옹호나 해명이나 반대의 입장에서 많은 논쟁을 일으켰다.

이 글의 목적에는 두 가지가 있다. 그 첫째는 Chomsky의 언어 학습의 이론을 개관해 봄으로써 그의 특징들을 정리해 보는 것이다. 물론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그의 이론에도 약간의 수정이 있게 마련이었다. 따라서 1965년부터 지금까지의¹ 그의 주장을 분석해 보는 것은 비록 언어 학습에 관한 그의 입장을 알아 볼 수 있을 뿐더러, 더 나아가서는 그의 언어철학 전체를 요약해 볼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된다.

또 하나의 목적은 이러한 Chomsky의 이론을 거부하려는 심리학자들의 주장을 배경으로 해서 그의 이론의 문제점들을 정리해 보는 것이다. 그의 이론이 워낙 배타적이고 강력했기 때문에 이론이나 응용에서 반론도 클 수 밖에 없었다. 그러한 극단론을 극복하고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으려면 우선 Chomsky의 주장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고 그 다음으로는 정반대의 자리에 서서 그의 주장을 들여다 보는 일이다. 결국은 이러한 두 가지 작업이 합쳐져서 앞으로 발전될 올바른 언어 학습 이론의 기초를 이루게 될 것이다.

2. LT(H, L)의 이론

Chomsky의 언어학습 이론은 흔히 LT(H, L)로 표시 된다. 언어학습에 관한 한, 그 동안에 언어학이나 심리학등에서 여러가지 학설들이 난립된 이상, Chomsky는 그의 이론을 가장 명료하게 나타내고 싶어서 이러한 표현을 썼을 것이다. 따라서 그가 스스로 내린 정의를 음미해 보는 것이 그의 학습 이론의 기본을 파악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Chomsky (1975:14)는 LT(H, L)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For example, take O to be humans and D language. Then LT (H, L)—the learning theory for humans in the domain of language—will be the system of principles by which humans arrive at knowledge of language, given linguistic experience, that is, given a preliminary analysis that they develop for the data of language.

여기에서 쉽게 노출되는 첫번째 특징은 인간이라는 요소를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언어 학습의 주체는 결국은 인간이라는 것을 Chomsky는 그의 이론의 기본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사실은 바로 이 점에서부터 Chomsky의 이론은 구조언어학이나 행태주의 심리학의 그것과 대치적인 입장에 있었다. 그는 인간성의 보다 심오함을 미리 간파하려고 하였다. 따라서 경험과 아무 관계가 없는 선형적 내재성이 인간에 관한 모든 연구의 기본

¹ Chomsky의 학습이론은 Chomsky(1965, 1968, 1975, 1977, 1980)을 참조하였다.

적 조건이 된다는 입장을 강력히 주장하였다. 이른바 본질주의 내지는 이성주의의 입장에서 모든 이론을 전개시키려고 하였다. 그가 1965년에 학습 이론의 윤곽을 밝히는 자리에서도 경험주의에 대한 비평과 반론을 먼저 앞세운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는 말하기를 “실험적으로 조작 가능한 조건하에서”, “관찰된 행태적 변화”만으로 언어의 학습을 설명하려는 시도는 지극히 주변적이며 부차적인 것임을 강조하였다(Chomsky, 1965:57). 그렇기 때문에, 경험주의에서 즐겨 사용하는 귀납, 조건화, 일반화, 단위화, 분류, 습관형성, 유추, 연상, 대치 등의 용어로는 인간 언어가 어떻게 학습되는가를 설명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인간만이 지니고 있는 생태적인 언어 능력을 설명할 수 없는 한 어떠한 이론도 하나의 이론으로 성립될 수 없다고 하였다.

그의 이론에 내포되어 있는 두번째 특징은 언어라는 요소를 중요하게 본다는 점이다. 즉 언어 학습의 이론은 올바른 언어의 이론 위에서만 성립된다는 입장을 그는 취하였다. 물론 그가 말하는 언어의 이론이란 생성문법을 말한다. 어느 인간이 어느 언어에 노출되면 이미 그의 능력의 일부로 내재해 있던 모수적인 조직이나 구조가 작동되어서 하나의 생성문법을 산출하게 된다. 이러한 조직이나 구조를 그는 학습 모형이라고 본 것이다.

언어가 학습된 결과를 생성문법이라고 주장했던 1965년 이래로 그의 문법 모형도 몇번의 탈바꿈을 하게 된다. 확대 표준이론이니 수정된 확대 표준이론이니 등이 바로 그들이다. 기저니 심층구조니 하는 개념이 많이 바뀌어서 최근에는 표피구조가 가장 중요한 모형으로 부각되었다(Chomsky, 1977:163-79). 의미의 해석도 논리적 형태라고 하여 표피에서 도출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그의 문법의 구조가 변형을 했지만은 수학적 형식주의에 입각한 구문론의 독자성을 강조하는 그의 언어관에는 변함이 없다. 즉 생성주의의 언어관을 그대로 고수하는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이러한 테두리를 벗어난 학습 이론은 성립될 수가 없다.

Chomsky의 학습 이론의 세번째 특징은 보편문법의 존재를 중요시 하는데 있다. 인간이 백지로 태어 나서 외부와의 경험에 의해서만 무엇이 습득된다는 극단적인 경험주의자가 아닌 바에야 인간에게는 무언가 이미 내재되어 있는 것이 있다는 주장은 자주들 했었다. 문제는 그 내재된 것을 무엇으로 규정지으며, 또한 구체적으로 습득되는 언어 지식과 어떠한 관계에 있다고 보느냐에 달려 있는 것 같다. Chomsky는 여기에서 가장 적극적인 입장을 취한다. 즉 하나의 보편문법이 내재되어있다고 그는 보는 것이다. 이러한 보편문법은 막연한 성향이나 자질등으로 표시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습득하는 자연언어의 기본 모형이며 규칙적 원리이다. 인간이 습득할 수 있는 자연언어의 형식적 조건과 기본구조가 곧 보편언어이다.

Chomsky가 강조하는 구조 의존의 원칙도 보편문법의 존재를 인정하는데서 시발된다. 즉 이미 보편문법이 내재해 있기 때문에 언어 자료가 투입되면 생성문법의 구조가 학습될 수 있는 것이다. 그의 설명에 의하면 보편문법을 기초로 해서 초기단계로부터 최종단계로 이르는 것이 언어습득의 과정인 것이다. 최종단계로 이르기 위해서는 당연히 경험이 필요하며 동시에 생리적 성숙이 필요하게 된다. 경험의 기능을 Chomsky(1980:33)는 “환경의 작동작용과 형성작용”이라고 부르고 있는 이유도 이미 내재된 것으로 보는 보편문법의 존재를 인정하기 때문인 것이다.

그가 내세운 언어 학습 이론의 네번째 특징은 언어를 지식 조직의 일부로 본다는 점이다.

앞에서 이미 지적되었듯이 인간에게 경험이나 자극이 가해져서 그 결과가 행태로 나타나는 형태로는 언어 학습의 과정이 설명될 수가 없다. 그와는 차원을 달리 해서, 이미 내재되어 있는 어느 체계에 경험이 더해져서 그 사람의 지식 조직의 일부로 혹은 하나의 인지상태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 바로 언어 습득이라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입장은 문법의 독자성을 철저히 고수하는데서 출발된다. 지식으로서의 문법은 형식주의에 의해서 구체적이며 명료하게 표시될 수 있기 때문에 의미나 지시등과는 구별되어야 마땅하다. 이러한 의미란 결국은 그 사람의 신념 체계의 일부가 될 따름이다. 세계에 대한 신념 체계 혹은 상식 체계를 누구나 가지고 있고 이들도 일종의 지식 체계이지만 언어의 체계와는 별개의 것이다(Chomsky, 1977:148). 인간이 구체적으로 언어를 사용하게 되면 이들의 체계가 연관되어서 작동한다. 그렇게 해서 이른바 통화의 적절성을 유지하며 사회적 교섭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언어 학습의 이론은 언어 사용에 관한 것은 아니다. 지식으로서의 언어 체계를 한 인간이 어떻게 습득하게 되는가를 밝히는 작업이 곧 언어 학습의 이론이다.

언어를 능력과 사용으로 엄밀히 구분하기 위해서 Chomsky는 우선 언어의 능력 자체를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하였다. 초기에 언어를 능력과 수행으로 양분하였을 때만 해도 그가 말하는 언어 능력이란 곧 문법 능력을 지칭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학습 이론을 설명한다는 것은 바로 이 문법 능력을 설명한다는 의미였다. 그러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단 학과의 반론에 자극되었음인지 그후에 가서는 언어의 능력을 문법 능력과 화용 능력으로 구분하기에 이르렀다.² 문장 단위의 문법외에 담화의 규약도 있음을 인정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화용의 능력까지 언급하게 된 것은 그의 입장에 상당한 변화가 있음을 시사하지마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애초에 그가 사용하기 시작한대로 능력이라는 용어를 고수한다는 점이다. 능력과 사용 내지는 수행과를 엄격히 구분하려는 그의 주장에는 변함이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능력은 곧 지식이고 언어의 이론은 곧 이 지식의 이론이어야 된다고 믿기 때문일 것이다. 이 두 가지 언어 능력을 그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Chomsky, 1980:224).

For purposes of inquiry and exposition, we may proceed to distinguish "grammatical competence" from "pragmatic competence," restricting the first to the knowledge of form and meaning and the second to conditions and manner of appropriate use, in conformity with various purposes. Thus we may think of language as an instrument that can be put to use. The grammar of the language characterizes the instrument, determining intrinsic physical and semantic properties of every sentence. The grammar thus expresses grammatical competence. A system of rules and principles constituting pragmatic competence determines how the tool can effectively be put to use.

이렇게 구분론과 화용론을 엄밀히 구분하고 있지만 이 두 가지 모두가 지식으로서의 능력이지 구체적인 수행이 아니라는 점을 Chomsky는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이 두 능력이 합쳐져서 사용의 상황에 투입되게 되면 여러가지의 심리적인 요소가 개입이 된다. 이른바 지각 작용과 지식 작용과는 다르다. 언어의 사용에는 언어 이외의 가치 체계나 신념 체계가 동원된다. 또한 언어 사용은 여러가지 정신조직이 교섭한다. 더구나 복잡한 심리 요소가

² 이 점에 대해서는 Chomsky(1977, 1980)에서 자주 설명을 하고 있다.

작동한다. 이러한 것들을 모두 합쳐서 수행의 모형이라고 한다면 이 수행의 모형은 능력의 모형과는 다를 수 밖에 없다. 이론의 순서가 여기에서 중요해진다. 즉 먼저 문법적인 능력이 구명되고 그를 바탕으로 화용의 능력이 구명되며, 그들을 기초로 해서만이 수행의 모형을 모색해 볼 수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순서가 지켜져야만 능력과 사용의 구분도 성립이 된다고 Chomsky는 본 것이다.

3. 심리학에서의 반증

이러한 학습이론에 대하여 언어학내에서도 이견이 있었으나 그 보다도 더 강한 반증은 심리학쪽에서 제시되었다. 문제는 능력과 수행의 구분에서부터 시작된다. 그의 설명에 의하면 언어학의 관심은 지식으로서의 능력에 있지 수행에 있지는 않다. 물론 말이 어떻게 감지되거나 생산되느냐 등의 절차 과정에 관한 것은 심리학에서 다루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언어 수행은 언어 지식의 습득이 전제가 된다. 즉 습득된 언어 지식이 어떻게 사용되느냐 하는 것을 심리학에서 구명해야 된다. 이렇게 본다면 학습에 관한 것은 심리학의 소관이고 언어에 관한 것은 언어학의 소관이라고 구분할 필요조차 없어진다(Chomsky, 1975: 160). 따라서 생성주의의 문법으로 충분히 인간의 언어 학습에 대한 이론이 성립된다고 Chomsky는 보는 것이다.

그러나 심리학에서는 그러한 주장을 모두 받아 들이지 않는다.³ 이른바 “심리적 실체”가 문제가 된다. 이러한 실체를 증명할 증거나 자료가 더 큰 문제가 된다. 이론적 문법의 모형이 그대로 언어 습득의 모형이 된다는 증거나 자료가 아직은 없다는 것이다. 또한 그렇게 추상화되고 이상화된 지식체계가 곧 학습의 체계라는 전제도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것 같다. 왜냐하면 그들은 관찰할 수 있는 행태를 자료로 삼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언어의 절차 과정을 더 중요시하는 심리학자들의 반론중에서 Bruner의 그것은 더욱 비중이 큰듯 하다 Bruner(1979)는 Chomsky의 언어 습득 장치를 무근거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의 주장에 의하면 언어 체계만이 추상적으로 내재해 있을 리가 없다는 것이다. 그는 실험의 결과를 증거로 내세우면서 언어의 습득 이전에 통화의 능력이 먼저 배양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어린 아이는 어머니와의 교섭을 통해서 세계에 관한 지식과 통화의 능력을 얻게 되며 이 상태가 있는 뒤에야 언어 체계를 배우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Marathos(1979)는 그의 관찰에 의하면 생성문법의 모형대로 어린이들이 언어를 배우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심층과 표피를 변형 과정으로 연결하면서 언어를 습득하는 대신에 구체적인 형태를 그대로 비축해 두었다가 유사한 기능이나 구조끼리 사용하는 규칙을 배운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 Fodor(1979:250)는 자기의 관찰을 증거로 제시하면서 심층 구조의 무의미함을 주장하고 있다. Fodor의 설명에 의하면 인간이 언어를 처리하는 절차는 심층이나 표피냐 하는 것과는 무관한 상태에서, 구문 조직으로 보나 혹은 의미적인 기능으로 보나 “좌에서 우로” 수축해 간다는 것이다.

심지어는 구문론의 유용성에 대해서 회의론을 표시하는 사람까지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Bever(1970:228-30)이다. 그의 주장에 의하면 인간이 언어를 접할 때에는 문장의 구문적 특성에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의미의 요소들에 따라서 해석이나 생산의 절차를 밟는다는

³ 물론 Chomsky의 문법을 그대로 심리학의 모형으로 삼는 사람도 있다. 예 : David McNeill (1970).

것이다. 구문론이 언어 사용의 중심이 된다는 Forster(1974)나 Garrett(1975)의 이론과는 정반대의 입장을 내세운 것이다. 상황이나 화용적인 지식에 관계 없이, 하나의 문장을 들으면 먼저 심층과 표피의 구조를 성립시킨 다음에 거기에 나타난 내용어들의 의미를 해석하게 된다고 그들은 주장했었다. 이러한 입장에 대해서 중간적인 태도를 택하는 사람도 있다. Holmes(1979)의 관찰에 의한다면 인간이 언어를 운용하는 데는 구문론이나 의미중의 어느 하나를 기본적인 축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히려 모든 절차마다에서 문법과 의미가 동시에 해석되어 나간다는 주장이다.

이상과 같이 언어의 근본적인 면에서 Chomsky의 학습 이론에 반론을 펴는 사람 외에도, 이론바 심리적 변수의 중요성을 들어서 그의 이론을 반박하는 학자도 있다. 이러한 학풍의 사람들은 언어학에서 다루는 기술의 모형과 인간이 실제로 언어를 배우는 학습의 모형과는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 좋은 예가 Nelson의 설명일 것이다. Nelson은 언어 조직만이 독립적으로 습득된다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즉, 언어는 여러가지의 복잡한 사회적, 인지적 및 통화적인 체계들의 발달 속에서 습득된다고 강조한다. 동시에 개인마다의 학습 형태와 학습 전략의 상이성도 무시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언어학에 대한 심리학의 입장을 Nelson(1981:183)은 다음과 같이 잘 해명해 주고 있다.

In brief, the argument here is that the child does not build up language by analyzing its parts in terms of lexicon, syntax, phonology, and pragmatics. Rather, the child acquires the language according to contextually determined parts. The context of language use will determine the function of presented utterances, their relationship to nonlinguistic conditions, the form of sentences, and their relative analyticity in presented form.

이렇게 Chomsky의 이론을 반박하는 사람들은 능력과 수행의 구분에 모두 반대하고 있다. Chomsky는 지식으로서의 언어 능력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그 지식이 수행의 규칙을 포함하지 않는 한 별로 의미가 없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언어 사용에 관한 이론이 언어 지식에 관한 이론보다 더욱 중요하다. 또한 Chomsky는 지식의 모형이 밝혀져야 그를 바탕으로 수행의 모형이 설명된다고 주장하지만 그 순서가 반대일지도 모른다. 즉 수행의 모형을 구명하다 보면 문법이 나타날지 모른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문법을 기본형으로 삼아서 언어 습득의 과정을 해명하려고 하는 접근법 자체가 오류일 수도 있다. 문법적인 지식에 관계 없이 심리적 절차만을 그대로 관찰할 수가 있다. 거기에서 학습의 이론이 도출될 가능성도 있다.

4. 결 론

지금까지 Chomsky의 언어 학습에 대한 이론을 개관하고 거기에 대한 심리학에서의 반론을 열거해 보았다. 처음에 언급했듯이 Chomsky의 이론은 강력한 대립성을 자초하고 나섰다. 능력으로서의 지식이 곧 문법이요, 그 문법이 곧 언어 이론이요, 그것이 더 확대하면 언어 학습의 이론이 된다는 강한 자세를 그는 취하였다. 인간이 경험하게 되는 언어 자료와 거기에서 산출된 문법을 상응해 보면 언어 습득의 장치는 저절로 밝혀지며, 또한 그러한 장치는 내재적인 것이어서 지극히 인간적인 특성이다. 언어 지식의 생명은 그 창조성에 있다. 그 창조성도 내재적인 구조에 들어 있다.

따라서 언어는 외부적 절차로는 학습되지 않는다. 저절로 습득되는 과정이 있을 따름이

다. 어느 의미에서 본다면 언어는 학습되어질 수 없는 것으로, 오히려 “자료에의 노출만으로 언어는 배워지는” 것이다(Chomsky, 1975:161). 언어 습득에는 설명이나 분석이 필요 없다. 단지 스스로의 발견과정이 있을 뿐이다. 또한 언어 학습의 모형은 사용의 모형과는 다르다. 언어를 감지하거나 사용하는 모형은 일종의 수행의 모형이 되기 때문에 언어 외적인 심리요소가 많이 개입된다. 물론 Chomsky도 최근에 화용의 능력을 인정한다. 그러나 문법의 능력이 먼저 구명되어야 화용의 능력도 연구될 수 있다고 그는 주장한다. 이 두 능력이 합쳐져서 언어 사용의 상황에 들어 가면 더 복잡한 언어 외적인 요소가 추가된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절차의 모형이라고 한다. 따라서 이 절차의 모형은 학습의 모형과는 별개의 것이라는 것이다.

Chomsky의 이러한 이론은 우선 심리학에서 반박을 하고 있다. 심리적 실체가 없는 추상적 규칙과 표식으로 학습 이론이 성립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언어에 규칙성이 있다고 해서 규칙의 원칙이 곧 학습의 원칙은 되지 않는다. 지식보다는 사용이 더 중요하다. 즉 사용의 모형에서 학습의 이론이 도출되어야지 기술의 모형에서는 우선 기술만 해야 된다. 또한 문장을 사실상 어떻게 듣고 말하는가를 관찰하고 기록하는데서 학습의 모형이 이루어져야 된다. 따라서 언어 구조만으로 사용의 모형이 해명될 수 없고, 또한 학습의 모형도 형성될 수 없다.

이상의 심리학적 반론 이외에도 언어학내에서 그의 학습 이론은 많은 도전을 받고 있다. 여러가지의 언어학적 새로운 이론들이 Chomsky의 이론을 공격할 수가 있다. 결국은 그의 학습 이론이 그의 문법 이론에 근거하고 있는 이상, 문법의 모형이 바뀌면 나머지도 바뀌게 마련이다. 문장을 언어의 단위로 보느냐 혹은 담화나 통화를 단위로 보느냐에 따라서 문법은 재구성된다. 최근에 의미론, 사회언어학 또는 화용론에서의 반론들이 그 좋은 예이다.

심리학과 언어학으로부터의 반론 이외에도 여타 학문에서의 반 학풍의 흐름에도 그의 이론은 영향을 받을 것이다. 애초부터 Chomsky는 철저한 이성주의자였다. 그러나 철학이나 과학 등의 분야에서 이성주의와 경험주의는 여러가지로 상호 보완이 있어 왔다. 인지주의와 행태주의, 본능과 경험, 내재와 학습, 생태와 환경 등의 용어들이 이러한 흐름을 잘 나타내 주고 있다. Chomsky 자신은 강력하게 이성주의를 믿고 있고 그의 학습 이론도 이에 입각한 것이다. 그러나 위의 개념들이 꼭 대립된 양극에서 배타적인 자세를 취할 필요는 없다. 학문의 입장은 다르지만, 같은 어느 대상을 추구하는 과정에서는 상호 보완적인 기여를 한다고 보아야 마땅하다. 이렇게 본다면 Chomsky의 이성주의적인 학습 이론도 아직 잠정적인 하나의 가정으로 밖에 볼 수 없을 것이다. 바로 이 점을 Lyons(1970:126)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Even if we grant for the sake of argument that the formal principles to which Chomsky appeals are universal in the sense that they do indeed hold in all language actually spoken by human beings, are we justified in maintaining that they are peculiarly congenial to the human mind, so that any conceivable human language must conform to them? Since we cannot prove, as yet, that languages violating these principles could not be learned or used by human beings, we are entitled to withhold our assent to Chomsky's hypothesis that these formal universals are innate.

참 고 문 헌

- Aaronson, D. & R.W. Rieber, ed.(1979) *Psycholinguistic Research*, Lawrence Erlbaum, N.J.
- Bever, T.G.(1970) 'The Cognition Basis for Linguistic Structures,' in J.R. Hayes, ed., *Cognition and the Development of Language*, Wiley, N.Y.
- Bruner, Jerome(1979) 'Learning How to Do Things with Words,' in D. Aaronson & R. W. Reiber, ed. (1979), 265-84.
- Chomsky, Noam(1965) *Aspects of the Theory of Syntax*, The MIT Press, Mass.
- _____ (1968) *Language and Mind*, Harcourt Bruce Jovanovich, Inc., N.Y.
- _____ (1975) *Reflections on Language*, Pantheon Books, N.Y.
- _____ (1977) *Language and Responsibility*, Pantheon Books, N.Y.
- _____ (1980) *Rules and Representations*, Basil, Oxford.
- Cooper, E. & B.C.T. Walker, eds. (1979) *Sentence Processing*, Lawrence Erlbaum, N.Y.
- Fodor, J.D. (1979) 'Superstrategy,' in E. Cooper & B.C.T. Walker, eds. (1979).
- Forester, K.I. (1974) 'The Role of Semantic Hypotheses in Sentence Processing,' in F. Bresson, ed., *Problemes Actuels en Psycholinguistique*, Centre National de la Reserche Scientifique, Paris.
- Garett, M.F. (1975) 'The Analysis of Sentence Production,' in G. Bower, ed., *Psychology of Learning and Motivation* Vol. 9, Academic Press, N.Y.
- Halmos, V.M. (1979) 'Some Hypotheses about Syntactic Processing in Sentence Comprehension,' in E. Cooper & B.C.T. Walker, eds. (1979).
- Lyons, John (1970) *Noam Chomsky*, The Viking Press, N.Y.
- Marathos, M. (1979) 'How to Get from Words to Sentences,' in D. Aaronson & R.W. Rieber, ed. (1979).
- McNeill, David (1970) *The Acquisition of Language*, Harper & Row, N.Y.
- Nelson, Katherine (1981) 'Individual Difference in Language Development: Implication for Development and Language,' *Developmental Psychology* 17.2,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ABSTRACT

On LT(H, L)

Jin-Woo Kim

In recent years there has been much argument among linguists or psychologists over theories and problems concerning human language learning. In particular, much of their discussion has centered around Chomsky's theory, for it has almost completely upset the empirical views on language learning. In effect, Chomsky's harsh attack on the traditional theories and the entailed counterattacks have been marked as all part of a serious effort on the part of linguists or psychologists to advance our knowledge in this profound area of human studies.

Based on a pure rationalist view, Chomsky's theory starts with a complete denial of all the empiricist theories of language learning. He does not hesitate to ignore the validity of the empiricist model of learning such as imitation, analogy, association, or generalization, and gives many explicit arguments to support his view that a theory of language learning must be a theory of the cognitive system. Chomsky also strongly assumes that some linguistic universals are innate properties of the language—acquisition device.

However, some psychologists have risen in opposition to Chomsky's theory. Bruner makes the important point that "the simultaneous development of world knowledge and of communicative competence is a necessary condition for provoking what can properly be called linguistic hypotheses." On the other hand, Bever offers the observation that people normally attend to semantic properties of sentences, not to syntactic properties. Nelson's observation indicates that the context of language use plays on crucial role in language learning.

Thus, the empiricist and rationalist views are in sharp contrast in analysing and explaining the process of human language learning. As long as a contradiction between these two stances affects not only their concepts but also their research methods, a mere parallelism will exist. But a unified view can be worked out through an integrative composition of these different concepts and evidences. Hence, Chomsky's theory should be regarded as a tentative hypothesis until all the sufficient evidences are obtained for an integrated theory.

151

동작구 흑석동

중앙대학교 영문과

(접수: 1982. 1. 28)